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5년 5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전월대비는 0.6% 감소

- 2015년 5월 생산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7.4%), 석유정제(2.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7.4%), 기계장비(-9.5%), 기타운송장비(-15.4%)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함(전월대비 1.5%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7.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8.8%), 예술·스포츠·여가(6.4%), 부동산·임대(7.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2015년 5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7.5%), 의복 등 준내구재(3.9%)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5% 증가(전월대비 보합)
 - 설비투자는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전월대비 1.3%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사무실·점포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84.5% 증가

- 2015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

◆ 201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0.1% 감소)

- 201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4(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7%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1%), 음식·숙박(2.5%), 교육(1.7%), 의류·신발(0.8%)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7.7)과 주택·수도·전기·연료(-1.1%)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107.7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전월대비로는 0.2%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2					2013					2014					2015 ^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5월	1/4	5월 ^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2.0	-0.9	-2.8(-1.3)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2.2	-1.0	-2.8(-1.4)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1.4	-0.7	-2.8(-1.2)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0.2	-0.7	-1.5(-1.4)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3.1	-0.6	-4.2(-0.9)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1.0	2.8	2.4(-0.4)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1	1.6	3.5(0.0)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6.1	8.4	0.8(-1.3)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7	0.6	0.7(0.0)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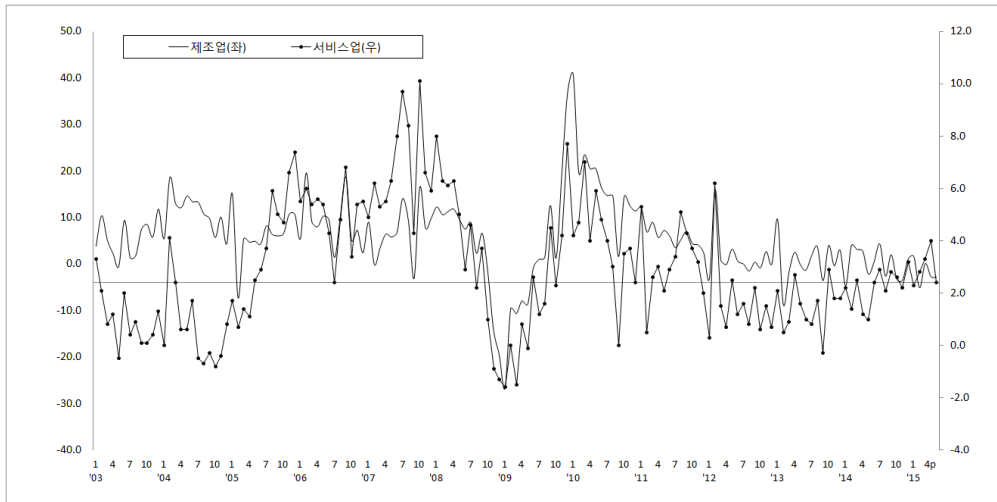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6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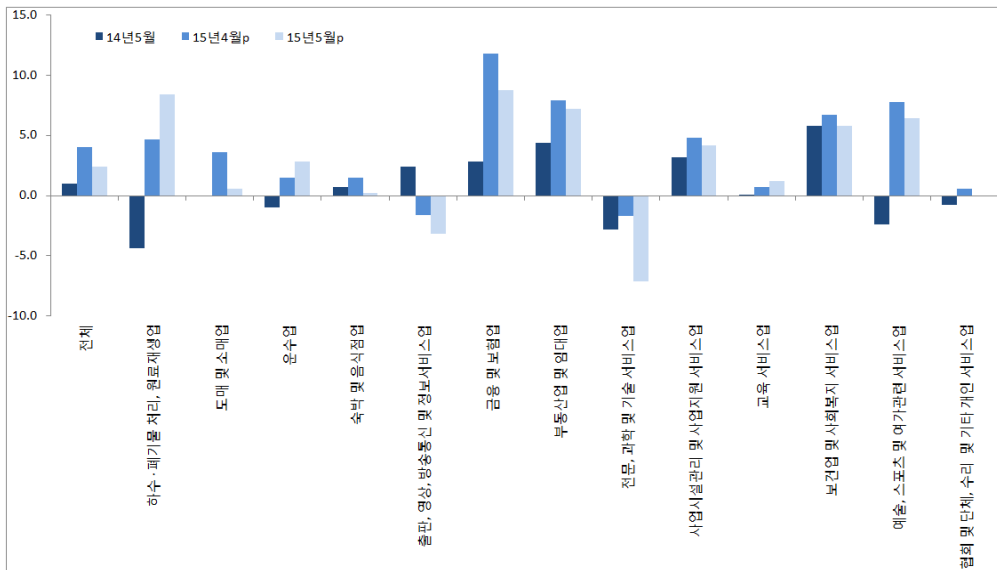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4월, 5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7), 『2015년 5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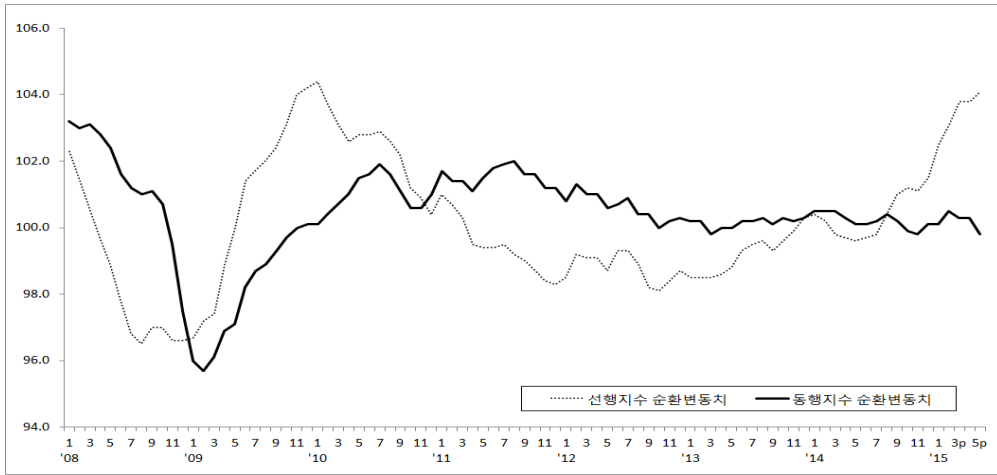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전년동분기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폭 하락**

- 2015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7,14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3천 명(1.4%)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650천 명으로 187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은 11,490천 명으로 186천 명(1.6%) 증가하였음.
- 2015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4%)은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52.4%)은 전년동분기대비 0.3%p 상승하였음(그림 4 윗그림 참조).
- 2015년 2/4분기 중 고용률은 60.7%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6%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50.3%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하였음(그림 4 아랫그림 참조).
- 2015년 2/4분기 중 취업자는 26,09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08천 명(1.2%)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05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5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04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3천 명(1.5%)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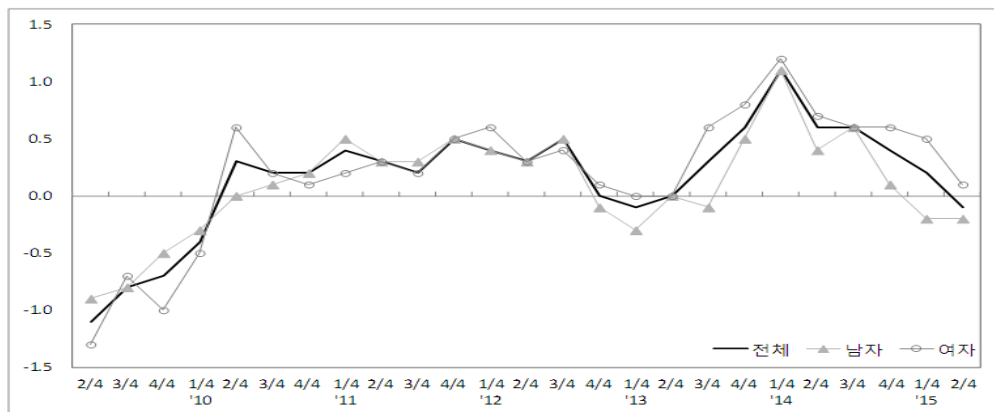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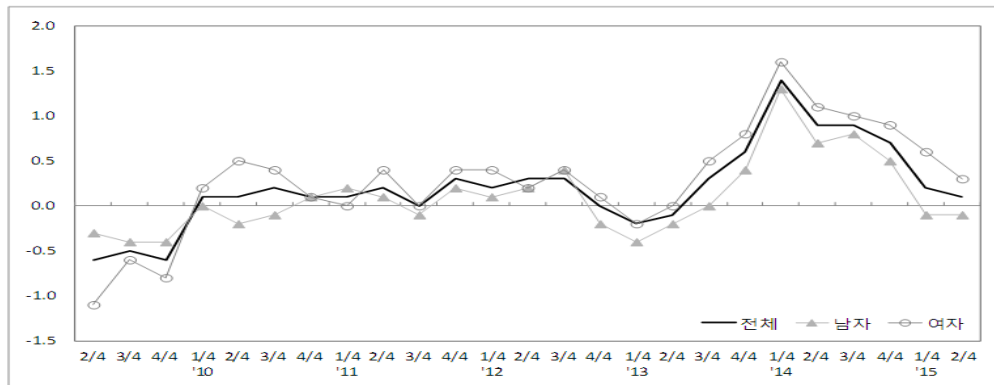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5,945 (3.4)	26,767 (2.4)	26,825 (2.0)	26,810 (2.4)	26,622 (2.1)	26,356 (1.6)	27,140 (1.4)	27,211 (1.7)	27,255 (1.6)
참가율	61.3	63.1	63.1	63.0	62.4	61.5	63.2	63.3	63.3
취업자	24,913 (3.0)	25,790 (1.8)	25,875 (1.6)	25,927 (2.0)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05 (1.3)
고용률	58.8	60.8	60.9	60.9	60.4	59.0	60.7	60.9	60.9
실업자	1,031	977	949	884	854	1,089	1,042	1,022	1,050
실업률	4.0	3.7	3.5	3.3	3.2	4.1	3.8	3.8	3.9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1.4)	15,666 (-0.9)	15,760 (-1.4)	16,066 (-0.6)	16,469 (0.4)	15,835 (1.0)	15,764 (0.5)	15,770 (0.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7), 『2015년 6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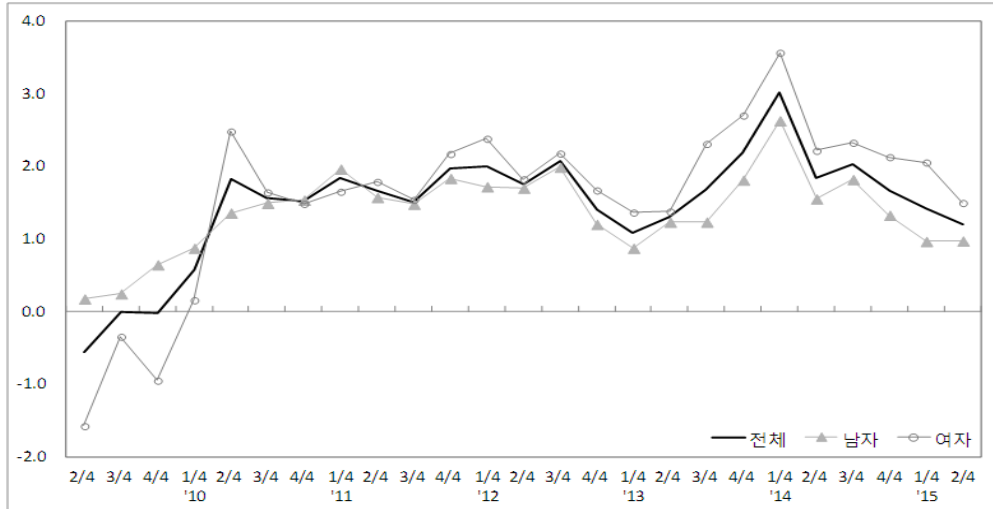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2/4분기 중 실업자는 1,04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5천 명(6.7%) 증가, 실업률은 3.8%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9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2천 명(7.6%)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4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천 명(5.4%)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8%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은 3.9%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하였음.

- 2015년 2/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0천 명(1.0%)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8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5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4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4천 명(0.6%) 증가하였음.
 - 2015년 2/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1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6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1천 명(11.5%)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86천 명으로 212천 명(-4.9%) 감소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전년동분기대비 취업자 증가 지속

○ 2015년 2/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47천 명, 3.4%), 건설업(45천 명, 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29천 명, 2.2%),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1천 명, 1.3%)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6천 명, -7.7%)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4천 명, -0.1%)에서 감소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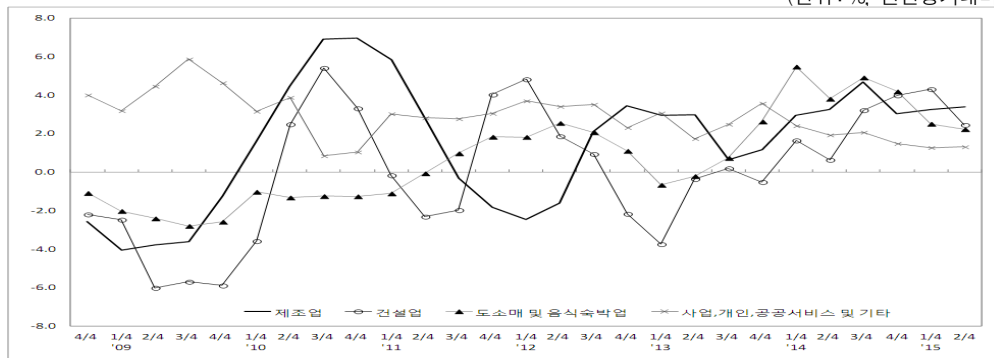
	2014					201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업	24,913 (3.0)	25,790 (1.8)	25,875 (1.9)	25,927 (2.0)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05 (1.3)
농림어업	1,179 (1.0)	1,631 (-3.2)	1,675 (-2.3)	1,603 (-7.0)	1,395 (-7.2)	1,092 (-7.3)	1,505 (-7.7)	1,534 (-7.4)	1,552 (-7.3)
제조업	4,279 (3.0)	4,319 (3.3)	4,345 (4.1)	4,346 (4.7)	4,374 (3.0)	4,418 (3.2)	4,466 (3.4)	4,464 (3.2)	4,478 (3.1)
건설업	1,683 (1.6)	1,813 (0.6)	1,842 (1.9)	1,833 (3.2)	1,854 (4.0)	1,756 (4.3)	1,857 (2.5)	1,862 (2.3)	1,870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37 (5.5)	5,798 (3.8)	5,803 (3.7)	5,930 (4.9)	5,992 (4.2)	5,984 (2.5)	5,927 (2.2)	5,950 (3.1)	5,944 (2.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865 (2.4)	9,147 (1.9)	9,133 (1.3)	9,176 (2.1)	9,128 (1.5)	8,978 (1.3)	9,268 (1.3)	9,301 (1.5)	9,286 (1.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5 (1.9)	3,067 (-0.5)	3,063 (-0.3)	3,026 (-2.5)	3,015 (-1.3)	3,029 (-0.9)	3,063 (-0.1)	3,066 (0.1)	3,060 (-0.1)

-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5. 7), 『2015년 6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5년 2/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227천 명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421천 명(2.2%)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87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3천 명(-1.6%)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507천 명으로 332천 명(2.7%)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도 5,066천 명으로 3천 명(0.1%)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654천 명으로 87천 명(5.5%)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짐(그림 7 윗그림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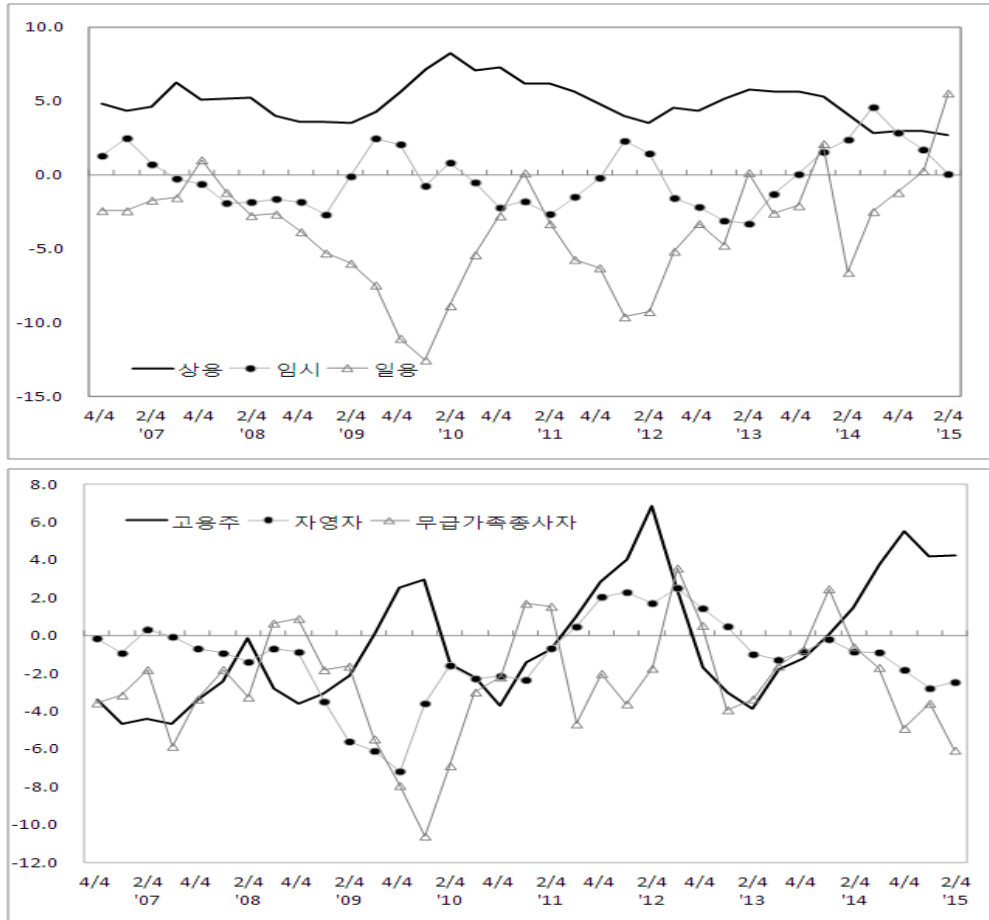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4,913 (3.0)	25,790 (1.8)	25,875 (1.6)	25,927 (2.0)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05 (1.3)
비임금근로자	6,597 (0.3)	6,984 (-0.3)	7,017 (-0.5)	7,047 (0.0)	6,799 (-0.8)	6,509 (-1.3)	6,871 (-1.6)	6,904 (-1.2)	6,889 (-1.8)
자영업주	5,512 (-0.1)	5,712 (-0.2)	5,726 (-0.1)	5,760 (0.3)	5,625 (0.1)	5,463 (-0.9)	5,675 (-0.6)	5,702 (0.1)	5,669 (-1.0)
무급가족종사자	1,085 (2.5)	1,272 (-0.6)	1,291 (-1.9)	1,287 (-1.7)	1,175 (-4.9)	1,046 (-3.6)	1,195 (-6.1)	1,202 (-6.6)	1,220 (-5.5)
임금근로자	18,316 (4.0)	18,806 (2.6)	18,859 (2.3)	18,880 (2.8)	18,968 (2.6)	18,758 (2.4)	19,227 (2.2)	19,285 (2.4)	19,316 (2.4)
상용근로자	11,985 (5.3)	12,175 (4.1)	12,212 (3.9)	12,181 (2.8)	12,280 (3.0)	12,341 (3.0)	12,507 (2.7)	12,517 (2.9)	12,558 (2.8)
임시근로자	4,835 (1.5)	5,063 (2.4)	5,058 (1.6)	5,153 (4.6)	5,076 (2.9)	4,918 (1.7)	5,066 (0.1)	5,058 (-0.5)	5,123 (1.3)
일용근로자	1,496 (2.1)	1,567 (-6.6)	1,589 (-6.5)	1,546 (-2.5)	1,612 (-1.2)	1,500 (0.3)	1,654 (5.5)	1,710 (8.6)	1,635 (2.9)
36시간 미만	3,593 (-35.4)	3,397 (-29.5)	3,387 (1.3)	5,229 (2.9)	3,659 (7.8)	3,689 (2.7)	3,661 (7.8)	3,642 (7.7)	3,619 (6.9)
36시간 이상	20,829 (15.1)	22,090 (9.3)	22,196 (1.7)	20,184 (1.9)	21,779 (0.7)	21,091 (1.3)	22,120 (0.1)	22,259 (0.6)	22,217 (0.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5. 7), 『2015년 6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2/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6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64천 명(7.8%)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120천 명으로 30천 명(0.1%) 증가함.

◆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실업률 상승

○ 2015년 2/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9.9%, 0.5%p), 40대(2.5%, 0.1%p), 50대(2.6%, 0.3%p), 60세 이상(2.2%, 0.3%p)에서 상승하였고, 30대(3.3%, -0.1%p)에서는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줄 이하(2.4%, 0.1%p), 고졸(4.2%, 0.1%p), 대졸 이상(4.1%, 0.3%p) 전 교육수준에서 상승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1,031 (4.0)	977 (3.7)	949 (3.5)	844 (3.3)	854 (3.2)	1,089 (4.1)	1,031 (3.8)	1,022 (3.8)	1,050 (3.9)
15~29세	419 (9.8)	399 (9.4)	407 (9.5)	371 (8.6)	350 (8.3)	445 (10.3)	419 (9.9)	406 (9.3)	449 (10.2)
30~39세	187 (3.2)	202 (3.4)	197 (3.3)	181 (3.0)	164 (2.8)	184 (3.1)	187 (3.3)	184 (3.1)	193 (3.3)
40~49세	155 (2.3)	167 (2.4)	146 (2.1)	145 (2.1)	146 (2.1)	164 (2.4)	155 (2.5)	185 (2.7)	158 (2.3)
50~59세	130 (2.2)	140 (2.3)	137 (2.3)	129 (2.1)	136 (2.2)	157 (2.6)	130 (2.6)	160 (2.6)	170 (2.7)
60세 이상	140 (4.4)	69 (1.9)	63 (1.7)	58 (1.5)	58 (1.6)	139 (4.1)	140 (2.2)	88 (2.2)	81 (2.1)
증줄 이하	173 (3.9)	108 (2.3)	105 (2.2)	95 (2.0)	96 (2.1)	164 (3.9)	173 (2.4)	112 (2.4)	121 (2.6)
고졸	443 (4.3)	427 (4.1)	430 (4.1)	414 (3.9)	381 (3.6)	472 (4.5)	443 (4.2)	425 (4.0)	475 (4.4)
대졸 이상	416 (3.7)	442 (3.8)	414 (3.6)	375 (3.3)	377 (3.3)	453 (3.9)	416 (4.1)	485 (4.1)	454 (3.8)
취업무경험 실업자	83	61	67	56	54	90	101	99	99
취업유경험 실업자	948	916	883	827	800	999	941	924	952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 7), 『2015년 6월 고용동향』.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5년 4월 명목임금상률은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

○ 2015년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2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함.

- 2015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305천 원)은 정액급여 증가율(2.7%)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적어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2.3%를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들어서서 2%대로 둔화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급,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24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4.2% 상승함.
- 2015년 1~4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0.4%p 상승한 3.0% 기록
- 2015년 1~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97천 원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3.0%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 대비 2.7% 상승한 3,482천 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7% 상승한 1,413천 원임.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체 근로자	2,995	3,111	3,190	3,201	3,036	3,297	3,122	
임금총액	(5.3)	(3.9)	(2.5)	(2.6)	(1.7)	(3.0)	(2.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3,299	3,378	3,390	3,231	3,482	3,305
		(5.3)	(3.8)	(2.4)	(2.8)	(2.2)	(2.7)	(2.3)
	정액급여	2,470	2,578	2,660	2,641	2,639	2,717	2,710
		(5.5)	(4.4)	(3.2)	(3.2)	(3.2)	(2.9)	(2.7)
초과급여	181	184	201	191	199	210	216	
	(1.0)	(1.7)	(9.3)	(7.8)	(10.6)	(9.7)	(8.6)	
특별급여	527	537	516	558	392	555	379	
	(5.8)	(1.8)	(-3.7)	(-0.9)	(-7.6)	(-0.6)	(-3.5)	
임시·일용근로자	1,293	1,377	1,387	1,403	1,367	1,413	1,424	
임금총액	(6.4)	(6.5)	(0.7)	(1.9)	(-0.6)	(0.7)	(4.2)	
소비자물가지수	106.3	107.8	109.0	109.1	109.1	109.5	109.5	
	(2.2)	(1.2)	(1.3)	(1.2)	(1.5)	(0.5)	(0.4)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1.4	0.2	2.5	2.4	

주: 1)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2015년 4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함.
- 2015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4% 상승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1%p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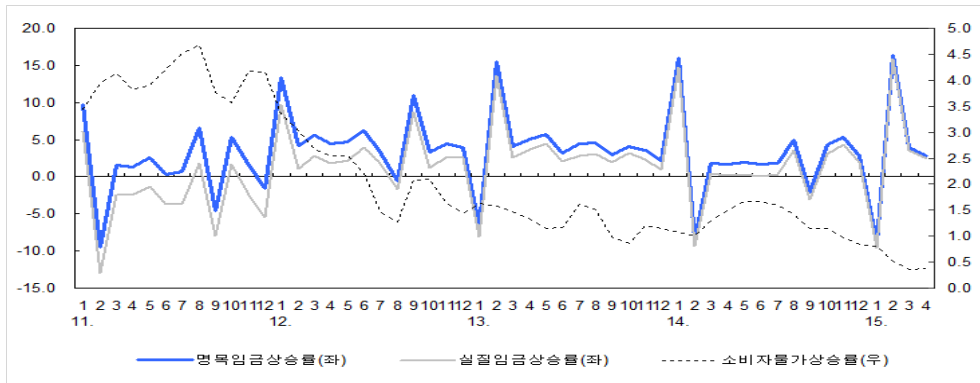
- 2015년 1~4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2.5% 상승함.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평균 대비 0.7%p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0.4%p 확대된 데 기인함.

◆ 2015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 4.3%

- 2015년 6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3%로 2014년 6월 인상률(4.7%)보다 낮은 수준임.
- 2015년 6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43.7%로 전년동월(17.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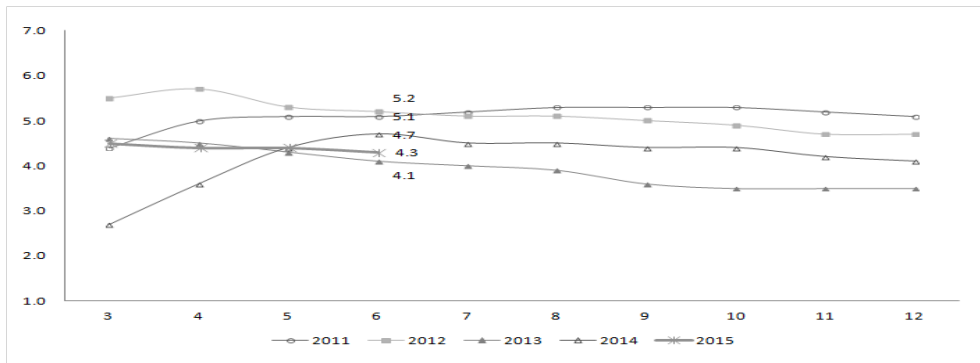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4월 모든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15년 4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큰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상승함.
 - 이 외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7%) 순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1.9%), 도매 및 소매업(1.0%) 등은 1% 대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201 (2.6)	3,036 (1.7)	3,297 (3.0)	3,122 (2.8)
광업	3,557 (2.5)	3,480 (-2.1)	3,389 (-2.5)	3,095 (0.1)	3,482 (2.7)	3,213 (3.8)
제조업	3,371 (4.7)	3,506 (4.0)	3,580 (5.2)	3,272 (3.5)	3,662 (2.3)	3,368 (2.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323 (4.2)	4,537 (-1.0)	5,507 (3.5)	4,638 (2.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760 (3.1)	2,663 (1.3)	2,864 (3.8)	2,788 (4.7)
건설업	2,414 (6.2)	2,497 (3.4)	2,497 (2.0)	2,404 (1.6)	2,612 (4.6)	2,528 (5.1)
도매 및 소매업	3,168 (1.5)	3,206 (1.2)	3,183 (0.8)	3,140 (2.2)	3,267 (2.6)	3,171 (1.0)
운수업	2,732 (5.5)	2,805 (2.7)	2,704 (0.6)	2,764 (1.9)	2,862 (5.8)	2,906 (5.2)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64 (1.2)	1,731 (-0.6)	1,823 (3.3)	1,807 (4.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894 (-3.3)	3,785 (-0.4)	4,013 (3.1)	3,915 (3.4)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306 (1.3)	4,933 (3.2)	5,651 (6.5)	5,025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311 (3.3)	2,290 (-0.5)	2,461 (6.5)	2,449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350 (6.0)	4,263 (4.6)	4,316 (-0.8)	4,308 (1.0)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904 (2.9)	1,874 (0.9)	1,976 (3.8)	1,981 (5.7)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435 (1.6)	3,082 (-1.3)	3,554 (3.5)	3,130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22 (-1.2)	2,581 (-0.4)	2,775 (5.8)	2,745 (6.3)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389 (2.7)	2,275 (0.0)	2,409 (0.9)	2,348 (3.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06 (-1.8)	2,170 (-1.9)	2,238 (1.5)	2,211 (1.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4월 평균 임금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8%)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2015년 1~4월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5%), 부동산 산업 및 임대업(6.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운수업(5.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8%), 건설업(4.6%) 순으로 임금이 상승함.
 - 특히 전년동평균 대비 임금상승폭이 적었던 산업은 여가관련서비스업(0.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5%)이며, 제조업도 전년동평균 대비 2.3% 상승에 그침.

◆ 2015년 4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5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으며, 중소기업은 전년동월대비 2.8%, 대규모 사업체는 5.0% 상승함.
 - 2015년 4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한 2,986천 원임. 이는 정액급여의 증가율이 소폭 상승한 데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0%p 상승한 4,625천 원임. 이는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증가율이 확대된 데 기인함.
- 2015년 4월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더 확대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한 1,313천 원임.
 -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1,436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4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했으나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큼.
 -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7% 상승한 3,080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4.7% 상승한 5,149천 원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폭은 둔화됨.
 - 중소기업 비상용근로자의 1~4월 평균 임금은 전년동평균 대비 0.5% 상승한 1,415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5% 상승한 1,398천 원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4월 평균		1~4월 평균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43 (2.8)	3,231 (2.2)	3,482 (2.7)	3,305 (2.3)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2 (3.2)	2,639 (3.2)	2,717 (2.9)	2,710 (2.7)
	초과급여	184 (1.7)	201 (9.3)	188 (7.8)	199 (10.6)	210 (9.7)	216 (8.6)
	특별급여	537 (1.8)	516 (-3.7)	613 (-0.9)	392 (-7.6)	555 (-0.6)	379 (-3.5)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16 (1.9)	1,367 (-0.6)	1,413 (0.7)	1,424 (4.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91 (2.2)	2,904 (2.3)	3,080 (3.7)	2,986 (2.8)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85 (3.1)	2,484 (2.9)	2,559 (3.0)	2,558 (3.0)
	초과급여	160 (3.0)	172 (7.5)	161 (6.3)	170 (6.7)	176 (8.0)	182 (6.8)
	특별급여	345 (-0.3)	332 (-3.6)	346 (-6.0)	249 (-5.8)	345 (7.2)	246 (-1.4)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 (-0.1)	1,418 (1.1)	1,380 (-0.7)	1,415 (0.5)	1,436 (4.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5,089 (4.6)	4,406 (2.0)	5,149 (4.7)	4,625 (5.0)
	정액급여	3,093 (4.3)	3,272 (5.8)	3,213 (4.0)	3,199 (4.2)	3,376 (5.2)	3,341 (4.4)
	초과급여	270 (-1.6)	316 (16.9)	290 (11.5)	302 (19.6)	349 (19.3)	358 (18.5)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586 (4.8)	906 (-9.2)	1,423 (0.6)	927 (2.4)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 (11.1)	1,400 (11.4)	1,248 (2.2)	1,398 (3.5)	1,31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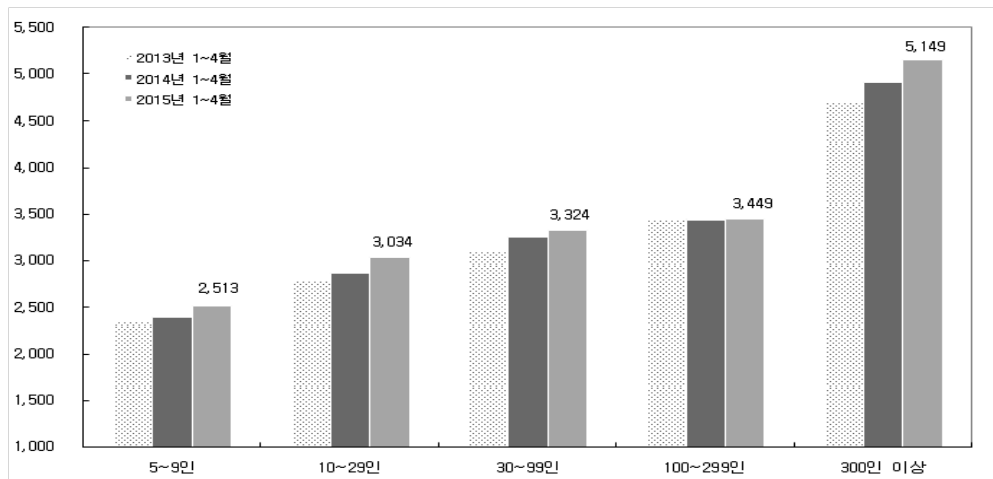
주: 1)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1~4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4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동일함에도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2015년 4월 근로시간(180.7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함.
 - 2015년 4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80.7시간)은 전년동월(180.2시간)에 비해 0.5시간 증가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7.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0.3% 감소한 113.7시간으로 나타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2013	2014	2015			
			1~4월 평균		1~4월 평균	
			4월	4월	4월	4월
전체근로시간	172.6(-1.0)	171.4(-0.7)	172.7(-0.5)	180.2(-0.9)	171.1(-0.9)	180.7(0.3)
상용총근로시간	178.1(-1.0)	177.1(-0.6)	178.3(-0.1)	187.9(-0.2)	176.6(-1.0)	187.9(0.0)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6(-1.0)	164.1(-0.9)	165.7(-0.4)	175.0(-0.5)	163.9(-1.1)	174.9(-0.1)
상용초과근로시간	12.5(-2.3)	12.9(3.2)	12.6(5.0)	12.9(4.9)	12.7(0.8)	13.0(0.8)
비상용근로시간	122.5(0.2)	117(-4.5)	118.7(-5.8)	114.0(-7.2)	114.6(-3.5)	113.7(-0.3)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0.9% 감소함.
 - 2015년 1~4월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0.9% 감소한 171.1시간임(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0% 감소한 176.6시간,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 대비 3.5% 감소한 114.6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4월 평균 근로시간은 산업별 차이를 보임.
 - 4월 현재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180.4시간인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184.0시간으로 나타남.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4월 평균 근로시간은 198.9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은 152.8시간으로 가장 적었음.

- 2015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0.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 대비 감소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8%)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0.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84.9시간)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4월 평균	4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2.7(-0.5)	180.2(-0.9)	171.1(-0.9)	180.7(0.3)
광업	180.6(-2.5)	179.4(-0.7)	179.5(-0.9)	189.8(1.2)	177.2(-1.3)	188.1(-0.9)
제조업	185(-0.8)	185.4(0.2)	187.4(1.2)	197.0(1.1)	184.9(-1.3)	195.9(-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72.1(-1.3)	180.4(-0.7)	170.9(-0.7)	182.7(1.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1.5)	177.8(-2.3)	179.4(-1.5)	186.9(-2.9)	174.3(-2.8)	184.0(-1.6)
건설업	152.7(-0.1)	148.5(-2.8)	150.2(-4.0)	152.4(-3.7)	146.5(-2.5)	152.8(0.3)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73.1(-0.8)	181.7(-0.8)	171.7(-0.8)	182.3(0.3)
운수업	177.8(-2.1)	173.1(-2.6)	173.5(-2.3)	179.7(-2.9)	172.1(-0.8)	179.2(-0.3)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4.9(-0.2)	175.9(-3.6)	174.3(-0.3)	180.4(2.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5)	161.9(-0.7)	164.8(0.6)	174.7(0.2)	163.2(-1.0)	174.9(0.1)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6.2(1.2)	175.4(1.3)	163.9(-1.4)	175.2(-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90.5(-1.0)	196.6(-1.7)	190.6(0.1)	198.9(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5.5(0.4)	175.7(-0.3)	163.2(-1.4)	174.6(-0.6)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72.8(0.3)	182.0(0.5)	171.3(-0.9)	180.0(-1.1)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5.2(2.8)	160.6(2.7)	151.5(-2.4)	160.5(-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1.6)	169.6(-1.4)	169.6(-2.0)	177.4(-2.5)	169.1(-0.3)	178.9(0.8)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1)	158.9(0.6)	158.8(1.3)	166.7(0.8)	157.7(-0.7)	167.2(0.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4.1(-2.6)	170.1(-3.6)	161.4(-1.6)	170.8(0.4)

-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4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감소함.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181.2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한

178.4시간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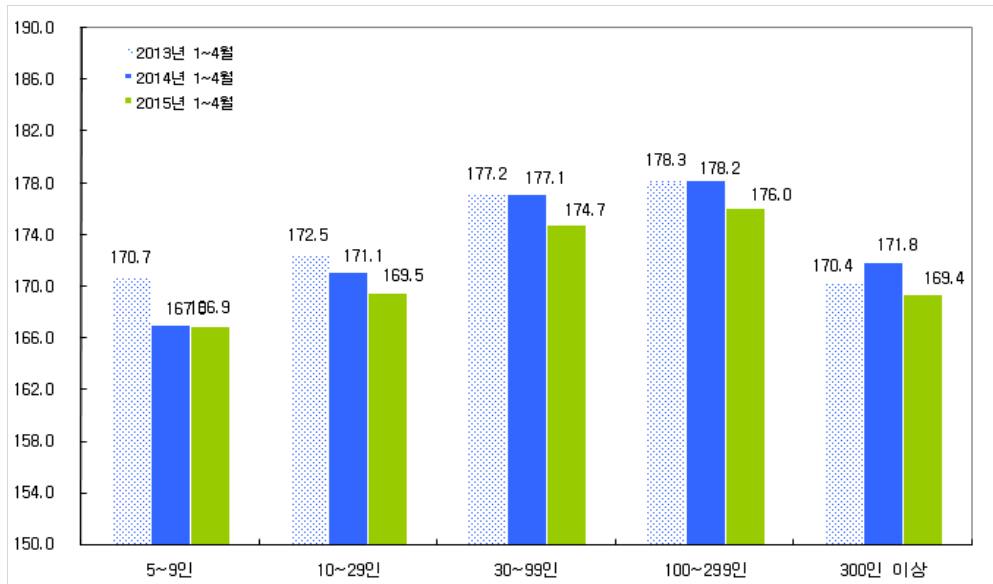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한 176.5시간,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0.2% 증가한 178.1시간,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0.2% 감소한 186.7시간,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1% 감소한 183.9시간을 기록함.

○ 2015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0.8% 감소한 171.5시간,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평균 대비 1.4% 감소한 169.4시간으로 나타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6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95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432건)보다 37건 낮은 수치임.
- 지난 6월 조정성립률 53.1%
 - 지난 6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4.2%에 비해 1.1% 낮아진 수치임.

〈표 11〉 2014년, 2015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6	395	333	138	57	81	122	23	99	19	54	62	53.1
2014. 6	432	393	176	75	101	149	16	133	29	39	39	54.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3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14건)보다 123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6.5%(115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3.5%(200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6	337	315	115	0	30	101	69	0	22
2014. 6	214	199	52	2	55	25	65	0	1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와 60세+ 정년 서포터즈(고용노동학회 및 민간 컨설팅 기관)가 주요 업종(자동차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음.

〈표 13〉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비교(평균)

	정년	임금 조정기간	임금 조정률
자동차 부품 (36개 사업장)	58.4세	2.4년	17.9% 감액
조선 (19개 사업장)	57.6세	2.7년	16.3% 감액
유통 (18개 사업장)	58세	4.2년	19.5% 감액
제약 (11개 사업장)	58.3세	3.4년	21.0% 감액
금융 (32개 사업장)	59.3세	4.3년	39.6% 감액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인지도 및 업종별현황」.

◆ 정부와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 중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37.6%로 나타남.
 - 근로자들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로서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나타남.
 -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10~20% 미만 감액이 응답자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5%가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4.4%가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한국노총이 조합원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내용과는 상이함.
 -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2%(50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62명)였으며, 이미 도입됐다는 응답은 8.8%(55명)로 나타났다.
 -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81.2%를 대상으로 한 반대 이유(중복 가능)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삭감으로 생활 유지·개선 어려움’(29.1%), ‘청년 등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서’(22.1%),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므로’(21.2%),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서’(18.8%) 순으로 나타남.

◆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인력수급 mismatch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 가중, △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우려 등이 있음.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의 충격 완화,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mismatch 해소,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이 있음.
 -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의 충격을 목표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일자리 공급하고,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 창출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
 - 또한,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일자리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한다고 밝힘.
 -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한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기로 하고, 사회변화와 산업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대학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을 구조 개혁함.

-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해외취업을 제공하여 연간 20만 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힘.

◆ 정부·여당과 한국노총, 노동시장 개혁 논의 재개되나

○ 새누리당이 당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른 시일 안에 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임.

-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에 이인제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 이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지난 4월 중단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임.
-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역시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임.

-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건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근로 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의 5대 수용불가 사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임.

○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국노총은 의제수정이 힘들어질 경우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제 자체를 국회에서 다룰지 귀추가 주목됨.

◆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총파업 결의 대회

○ 민주노총이 지난달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폐지를 촉구하며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조합원이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은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중으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진행됨.
-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저항과 비판여론을 의식해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단위노조들의 7·8월 임금단체협상과 여름 휴가, 금속노조 등 주요 산별조직의 지도부 선거 등으로 노동계 내부의 긴장이 이완된 틈을 노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을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재차 결의한다”고 밝힘.
- 또한, 민주노총은 하반기 민중연대투쟁 조직화에 주력할 방침이며, 정부가 단협 시정대상으로 지목한 사업장 노조 공동투쟁과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방안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공동투쟁 등을 전개할 계획임.

◆ **르노삼성, 완성자 첫 임협 타결**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올해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업계 최초로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함.
 -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2.3%(4만2천300원) 인상 △생산성 격려금 지급 △통상임금 자율 합의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대타협 격려금 700만 원 등임.
 - 올해 임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철회하자 사측은 다른 10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시키기로 하며 타협함.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노사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을 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고,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을 전년 대비 10% 감액하기로 했음.
 -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대타협을 이뤄준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대타협을 통해 확립된 노사간의 상호신뢰는 우리 회사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한화케미칼, 산재사고 안전대책 촉구**

- 지난달 3일 오전 울산에 있는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저장조 위에서 작업을 하던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이 부상을 입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6명이 저장조 위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용접불티가 튀어 잔류가스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는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산재사고로 기록됐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 민주노총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언급한 뒤, “이번 사고의 작업허가서는 하청업체에서 8시에 요청해 10분 뒤인 8시10분에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발주처에서 작업허가서 발급까지 3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면 허가서 발급이 줄속이 아닐 수 없다”며 “결국 한화케미칼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를 끊어주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석유화학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최저가 낙찰’을 통해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하청업체는 안전비용을 줄이는 것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며 “한화케미칼의 안전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건설현장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노후설비 전면 개보수, 기업 자율에 맡겨진 안전조치를 정부가 강제하고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힘.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